

숲과나눔 통신

숲과나눔 환경아카이브 풀숲, 출발합니다!



숲과나눔

2020. 7. 27. 11:48

[이웃추가](#)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기억될 수 없고 기억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는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는 여름의 어느 날, 오늘은 어떤 날로 기억될까요? 어떤 기록이 오늘 하루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숲과나눔은 30여 년간의 환경활동의 조각조각을 모아 기억으로, 이어진 역사로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때때로 정보는 변화의 첫걸음이 되곤 하니까요. 10년 전 사진부터 5년 전 워크숍 자료집, 20년 전 설립취지문이 온라인에 모였습니다. 바로 지난 6월, 숲과나눔이 시범 오픈한 ‘환경아카이브 풀숲’의 이야기입니다. ‘풀숲’은 다양한 기록 중 환경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는 온라인 아카이브입니다.

숲과나눔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늘은 정식 오픈을 앞둔 날. 축하하기 위해 조촐하게 참여했던 분들께서 모여주셨습니다. 손을 씻고 온도를 재고, 문진표를 작성하느라 입장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먼 듯 가까운 자리 배치에 음료를 마시며 그동안 못다 한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숲과나눔

이윽고 ‘환경아카이브 풀숲 오픈파티’라는 이름의 공식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숲과나눔 장재연 이사장님께서 아카이브의 의미와 가치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환경 분야의 큰 어른이신 환경운동연합 고문이신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카이브는 저희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단체들이 많은 것들을 감당해주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환경단체가 지난 3~40년 동안 환경에 기여했던 일이 많지만, 각자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어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을 해왔던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아카이브를 만들며 각자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 냈습니다.

숲과나눔 장재연 이사장

역사는 굵어내고 꺾매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건 아카이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 예술가 등 활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기록을 뽑아내서 꺾매는 일. 물론 잘못 꺾매면 안 되겠지요. 가치를 크게 만들어 다시 아카이브에 넣고 그렇게 더욱 풍성해지는 아카이브가 되면 좋겠습니다.

숲과나눔

환경아카이브를 만드는 데는 복잡다단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숲과나눔 이지현 사무처장님께서 실감나는 발표로 아카이브의 탄생 과정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아카이브 시스템의 실제 제작사인 아카이브랩의 안대진 대표님께서 아카이브 똑똑하게 사용하는 법을 시연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대부분 자료가 쌓여 방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책꽂이에 여유가 좀 생겼다고 하는 말이 제일 기뻐던 것 같아요. 아카이브를 하다 보니 단체의 재미있는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진행된 탈핵 100만인 서명 운동이라던가, 쓰레기 관련 91년 자료, 녹색교통 창간회보,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설립취지문 등... 이런 자료만 모아서 잘 살펴보아도 아카이브를 통해 새롭고 체계적인 운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현 숲과나눔 사무처장

단순히 생각하면 아카이브는 자료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전자화 된 자료를 단어로 검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이를 목록화하는 작업이

숲과나눔

록물관리전문가)들이 UCLA에 모였습니다. 백악관과 환경보호국을 포함한 정부 사이트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기후변화에 대한 공식 자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였죠. 역사를 구하기 위해 기후변화 데이터 세트를 미국에 있는 몇몇 사이트에 숨겨놨다고 합니다. 4월에 우리가 처음 모였을 때의 사진을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안대진 아카이브랩 대표



참여단체의 감사 한마디

숲과나눔



“사실 시민단체가 열악해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잘 정리해서 적합한 형태로 제공해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풀숲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풀숲이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한다는 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운동이 활동가들이 애쓰는 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공동대표

숲과나눔



“아카이브 작업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원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작업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동안 숲과나눔의 주요 활동들을 많이 봐 왔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잘 이용하는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시리라 믿습니다.”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동진 소장

숲과나눔



“환경운동연합이 10년 전에 아카이브를 했었습니다. 전자화까진 못하고 목록화만 했는데 서버비가 없어서 그 자료를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숲과나눔이 이런 일을 만들어 주시고 진행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에 가 보면 각종 운동사가 나와있는데 환경운동만 없더라고요. 이제 환경운동사 정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숲과나눔



“아카이브에 검색을 해 봤는데 꽤 많은 자료들이 온라인화 되어 있더라고요. 녹색연합은 여러 단위들이 합쳐져 만들어졌는데 그 역사도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그 당시의 따뜻했던 사람들, 열정들 하나하나가 새록 새록 기억이 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숲과나눔



“처음에 아카이브 사업을 한다고 하셨을 때, 환경 분야에 애정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업을 딱 집어내서 제안을 하시는구나 하고 반가웠어요. 자료를 찾으면서 저희도 많이 신기했고, 배우기도 했고, 지금은 없는 과거의 활동가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카이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

숲과나눔



“저희가 거의 100년이 된 단체지만 환경운동만 하는 단체가 아니어서 자료가 가장 적었을 거예요. 연구해 왔던 자료들을 단체들과 공유하면서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것 같아서 기쁘구요. 8월에 오픈하는 저희 YWCA 100주년 아카이브에도 많이 들어오셔서 자료도 공유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YWCA연합회 윤수정 팀장

숲과나눔



“이전 자료를 보면서 공부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안에서 활동가끼리 공유하는 것만 집중을 했지 외연
화에는 집중을 하지 못했었는데, 아카이브가 결국 그 목적에 달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더 많은 자료가
쌓여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녹색교통 김광일 사무처장

숲과나눔



“디지털 아카이브로 사진이나 영상 등 더 많은 사람이 그간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는 콘텐츠를 추가로 기획 하신다니 기대가 됩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에 1960년대 국립공원이 최초 만들어지는 과정 부터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라든지 환경운동으로 했던 주민들의 기록 등 다양한 자 료가 있어서 이 자료들을 풀숲 아카이브에 반영하려고 해요.”

숲과나눔



“운동가나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그 자료를 축적해가면서 관점을 갖고 모아내는 작업, 쌓아가는 작업을 함께 하면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민주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죽어가고 없어지겠지만, 지식과 아이디어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일을 만드는 역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 숲과나눔 이사

숲과나눔



“그동안 환경운동에 관여하고 참여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환경아카이브에 그 과정이 집대성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숲과나눔의 이사로서 이런 결정에 참여했다는 데에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온 땀과 눈물이 풀숲을 통해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남아있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숲과나눔 이사

숲과나눔



다시, 모이고 엮어서 만들어 낼 미래

정식오픈일은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창립 2주년이기도 했는데요. 소박하게 준비한 축하케익을 함께 자르며 재단 생일도 축하했습니다. 숲과나눔은 '환경아카이브 풀숲'에 이어 환경사진 아카이브도 준비하고 있어요. 환경 사진까지 아카이브에 더해진다면 더 울창하고 푸르른 '풀숲'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간의 활동이 횡으로 종으로 엮어 우리들의 이야기까지 더해진다면 더 나은 세상도 그리 멀지만은 않겠지요.



지금 '환경아카이브 풀숲' 보러가기 😎

<http://ecoarchive.org>

그 기린 스키니 배너

숲과나눔

#숲과나눔 #재단법인숲과나눔 #아카이브 #환경아카이브 #기록 #역사 #기억 #환경 #안전 #보건
 #환경아카이브풀숲 #풀숲 #숲과나눔아카이브 #온라인아카이브 #환경운동 #환경단체 #환경운동사
 #환경사회연구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교통 #한국YWCA연합회 #환경정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여성환경연대

5

0



숲과나눔

(재)숲과나눔은 가정, 일터, 지역사회의 환경이 숲과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여망이 모여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이웃추가

이 블로그 **숲과나눔** 통신 카테고리 글



이 블로그의 **#숲과나눔** 다른 글

[서지현의 남미이야기] 에콰도르, 석유 개발을 넘어 부엔 비비르(Buen Vivir) 사회로?

2021. 2. 24.

36 0

풀꽃 5기의 삶, 시작하다

2021. 2. 24.

6 1

숲과나눔

4 0

연실소 : 연구기획실을 소개합니다

2021. 2. 24.

6 0

제주 바당, 연산호 무사게? - 풀꽃 4기 '에코핀더하기'팀

2021. 2. 24.

0 0



맨 위로

모먼트 만들면 네이버페이 최대 100만원
#빵이맛있는 카페 알려주세요

PC버전으로 보기